

LIGHTING & INTERIORS*

조명과 인테리어 · JULY+AUGUST 2008

프로젝트 | 보오메 꾸뜨르 호텔 · 현대해상 금산 연수원 · 벽산 블루밍 백석 Wi City · 중식 레스토랑 용궁 ·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 · 북한산 래미안

해외프로젝트 | FROM GLOW TO GLOW · STREETWISE

조명프로덕트 | LIGHT OF THE FUTURE 2008 · LIGHT YEAR



9 771227 675005
ISSN 1227-6758



01_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 내부에 마련된 리셉션의 전경.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Three Stripe 모양의 조명기구와 Super graphic이 아우러져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02_오피스 내부 복도의 전경. Three Stripe 로고를 벽면에 새겨 브랜드 이미지를 살렸다.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차별화를 연출한 **신개념 사무공간**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5 삼성생명 서초타워 8, 9층 클라이언트 : 아디다스 코리아
 규모 : 2개 층 면적 : 총 244㎡ 인테리어 설계 : 다원디자인 인테리어 시공 : 다원디자인
 조명설계 : 다원디자인 조명시공 : 다원디자인 조명납품 : 강산조명
 취재 : 이인혁 기자 사진 : 강기정 기자

프로젝트 개요

아디다스는 80년 이상을 스포츠 용품 개발에 주력해 온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두 브랜드로서의 자부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스포츠 용품과 스포츠 용품업계에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다.

현재의 아디다스는 스포츠 용품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 각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또한 독보적인 위치와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브랜드와 제품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 중 서울시 서초구 삼성타운에 마련된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는 아디다스가 글로벌 리더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사무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가진 기업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이번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의 인테리어 디자인, 조명 디자인은 (주)다원디자인에서 담당했다.

인테리어 디자인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트는ダイ내미칸한 공간의 Shape와 브랜드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Super graphic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03

03. 입구에서 바라본 8층 복도의 디테일. 벽면을 Black & White로 구성해 대비되는 느낌을 주었으며, 천정에 스포츠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확보했다.
04. 사무공간 내부에 마련된 회의실과 기둥의 디테일. 기둥을 연두색으로 구성함으로써 동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05

05. 8층 사무공간의 전경. 중앙에 위치한 회의실 벽면의 로고가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06. 8층 사무공간의 디테일. 천정에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형광등을 매입한 뒤 격자로 된 루버로 마감했다.



04

다이나믹한 공간의 Shape는 건축의 기본 요소인 Line, Square, Circle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스포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표출하기 위해 'S Wall'이라는 공간 형태를 각각의 브랜드에 부여했다. 또한 브랜드를 다양화시키면서 통일성을 주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를 공간에 최대한 부합시켰다.

아디다스는 역동적이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Three Stripe으로 대표되는 로고를 인테리어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해 천정, 벽, 바닥의 디자인 요소에 포함시켰다. 또한 Black & White 톤으로 강한 대비를 주었으며, 소재 또한 유광 소재와 무광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특히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모델들로 구성된 Super graphic을 유리라 벽체에 사용해 스포츠 회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고, 공간의 활력소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9층에 위치한 리셉션 공간은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3선 아트월을 설치해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천장 역시 복도에서부터 이어지는 3선 로고를 설치했다. 전체적으로 White톤의 마감재를 사용해 공간을 구성했으며, 중간 중간 Super graphic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8층과 9층에 각각 마련된 사무공간은 쾌적하고 역동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 색상의 경계를 유리벽으로 설치했으며, Super graphic으로 마감해 기업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중간에 설치된 기둥의 색상을 연두색으로 마감함으로써 기존 오피스 공간과 달리 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무공간 옆에 마련된 CAD룸에는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Three Stripe 로고를 이용해 벽면과 천장을 구성했다. 또한 중간에 원형 유리창을 설치하고 Three Stripe 로고를 새





07. 9층 엘리베이터 홀의 천경, 벽면을 검은 바리솔로 마감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으며,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Three Stripe 모양의 조명기구를 천정에 설치했다.
 08. 9층 사무공간의 디테일.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모델이 세겨진 Super graphic이 기업의 이미지를 잘 나타낸다.
 09. 리셉션과 인쪽 대표 집무실을 연결해주는 복도의 천경. 천정에 스포츠모형을 설치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으며, 유리문에 Three Stripe 로고를 새겼다.

졌다.

엘리베이터 홀은 리셉션 공간보다 먼저 방문객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유광 소재인 검은 바리솔을 사용해 벽면을 마감했으며, 천장을 아디다스의 3선 아트월로 구성해 리셉션 공간의 천장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9층 리셉션 공간 반대편에 마련된 아디다슬러 대회의실은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검은 바리솔과 Super graphic으로 벽면을 마감했으며, 전면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해 빔 프로젝트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바닥에 Gray 톤의 카펫을 깔아 깔끔하면서도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했다.

사무공간 내부에 마련된 소회의실에는 Super graphic으로 마감된 유리벽을 설치했으며, 천장 역시 어두운 톤의 유리로 마감했다.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라운지 공간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밝은 톤으로 구성했으며, White 톤의 탁자와 탁상용 축구게임, 자판기 등을 마련했다. 특히 Bar 형식으로 길게 설치된 Red 톤의 탁자는 깔끔하면서도 쾌적한 느낌을 준다.

조명 디자인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의 조명 디자인 역시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Active와 Dynamic한 요소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테리어 천장 마감재와 조명을 강하게 대비시켜 Active하고 Dynamic한 느낌을 부각시키도록 공간을 설계했다.

조명 설계는 전체적으로 바리솔 내부에 할광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반조도를 확보



09



9층 사무공간의 전경. 책상의 배치와 벽면의 Super graphic이 어우러져 동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리셉션 쪽에서 바라본 9층 사무공간의 입구. 천정에 스포트조명을 설치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벽면을 Black & White Color로 대비되는 Super graphic으로 구성해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12_9층에 마련된 이디다슬러 회의실의 전경. 천정에 13W짜리 렌즈 부착형 UL Lamp를 설치해 회의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는 한편, 천장과 벽면을 Black & White Color로 대비시켰다. 13_사무공간 내부에 마련된 회의실이 디테일. White Color로 벽면을 구성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으며, 중앙에 원형 유리창을 설치하고 가운데에는 로고를 새겼다.



했으며, 되도록 다른 조명기구의 사용을 지양했다. 특히 기존 오피스와 달리 천장 매입형 조명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최대한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도의 경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은 650lux로 설정했으며, 리셉션과 라운지, 쇼룸 등의 공용공간은 450lux로 다소 어둡게 설정했으나 조명의 강·약을 조절해서 제품 이미지와 스타일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리셉션 공간은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어필하는 첫 번째 공간이다. 따라서 천장에는 바리솔 내부에 형광등을 매입한 뒤, 이것을 아디다스의 상징인 3선 로고 형식으로 길게 설치했다. 또한 전반조도를 위해 천장 곳곳에 13W짜리 렌즈 부착형 UL Lamp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홀 역시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리셉션 공간과 마찬가지로 3선 로고 모양의 매입등을 설치했으며, 엘리베이터 홀만의 모던한 분위기를 위해 13W짜리 렌즈 부착형 UL Lamp를 설치했다.

대부분의 업무가 이뤄지는 사무공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오피스 공간들 중 가장 높은 조도로 조성되었다. 천장에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형광등을 매입한 뒤 격자로 된 루버로 마감했으며, 이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해 전반조도를 확보했다. 특히 CAD룸에는 업무의 효율과 더불어 최대한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형광등을 달아 단조롭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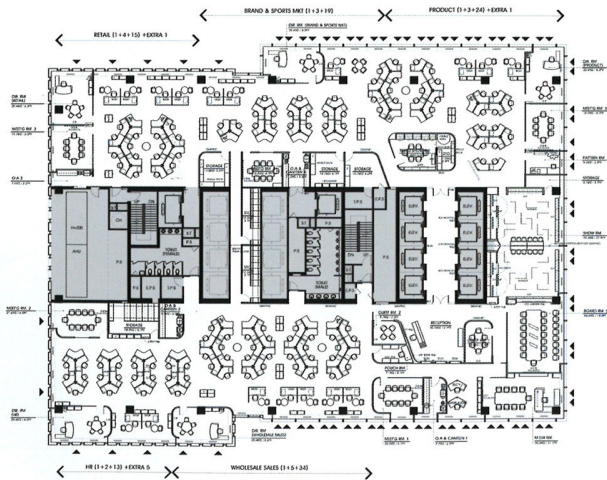
9층에 마련된 이디다슬러 대회의실은 13W짜리 렌즈 부착형 UL Lamp를 설치해 회의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는 한편,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0W 할로겐램프를





1쪽 사무공간을 이어주는 복도의 전경. 벽면에 새겨진 Super graphic과 Three Stripe 로고가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지 공간의 전경.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밝은 톤으로 구성했으며, Bar 형식으로 길게 설치된 Red 톤의 탁자를 설치해 깔끔한 느낌을 주었다. 디디스 쇼룸의 전경.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중간 중간 70W짜리 Par lamp를 설치했다.

평면도



스포츠 조명으로 사용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도를 설정하기 위해 Dimming 시스템을 설치했다. 다양한 상품이 진열된 쇼룸에는 상품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한편, 브랜드 자체의 특성을 위해 바리솔 내부에 FL 40W 형광등을 매입했으며, 중간 중간 70W짜리 Par lamp를 설치했다.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라운지 공간은 회의실과 동일하게 13W짜리 렌즈 부착형 UL Lamp에 50W 할로겐램프를 설치했으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할로겐램프의 비중을 높였다.

About designer



조서윤

1965년에 미국 Ohio University Interior Design을 졸업했으며, 1987년에 Florida State University Interior Design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졸업 후 Kaiser Associates, 현대건설 등에 근무했으며, 현재 (주)다원디자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작품으로는 UBS(2007), Adidas Group (2007), C&V Isean Janghang(2007), 아디다스 리믹스, 테일러 페이트(2007), Franklin Templeton (2008), NC Soft(2008) 등이 있다.



김주상

1994년에 경원대학교 인문대학디자인학부를 졸업했으며, 2000년부터 (주)다원디자인 설계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삼성증권Inno Ballerina, Applied Materials Korea 사옥, McKinsey & Company, 우리투자증권, Allianz Life Insurance, Samsung Economic Research 등이 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디자인 합니다”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를 설계한 다원디자인 조서운 대표

서울시 서초동 삼성타워에 입주한 아디다스 코리아 사옥은 아디다스가 스포츠용품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킨 공간이다. 이곳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업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조명 디자인이 필요했다. 아디다스 코리아 사옥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원디자인의 조서운 대표를 만났다.

-이번 아디다스 사옥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디다스 코리아 오피스는 건축의 기본 요소인 Line, Square, Circle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스포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느낌을 표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 형태도 자유롭고, 매우 능동적이며 활동적이어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해줄 공간의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까지 많은 오피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인 ‘클라이언트의 성향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원칙을 준수해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명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조명은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아디다스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홀과 리셉션 공간 천장에 설치된 매입등은 아디다스의 로고인 Three Stripe를 형상화한 조명기구입니다. 또 제품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을 설계했지요.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을 시작하셨는지요? 또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원래 국내에서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다녀오신 교수님께서 제게 “미국은 현재 인테리어가 유망직종으로 손꼽힌다”고 말씀해주셨죠. 저 역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열



정을 갖고 있었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1982년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테리어라는 분야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었지요. 그 후 미국 오하이오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Bass & Bass, Steven & Wilkinson 등 디자인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인테리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추구하시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세계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추구하는 인테리어는 간단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죠. 사람은 각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성과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말하자면 오피스에서 일하게 될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광고나 영업 등 비즈니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디자이너 본인의 예술적 성향에만 치우친 디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성만을 부여한 디자인을 하면 실용성도 떨어지고,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없지요.

-대표님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시면서 다원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남성이 아닌 여성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경영 방침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여성 CEO라고 해서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성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나라의 클라이언트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친밀감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한계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다원디자인은 다른 프로젝트보다도 오피스를 많이 지향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7년 동안 디자인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오피스 프로젝트

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테리어 회사의 85%가 오피스를 주력으로 진행할 만큼 오피스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지요. 오피스 디자인에서 Top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곧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다원디자인 역시 85%가 오피스 디자인이고, 10%는 상업공간, 5% 정도를 호텔로 하고 있지요.

-다원디자인은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지요. 저 역시 일선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찾으려 노력하고, 이것이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시면서 조명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조명 디자인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편이신가요?

▶조명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조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저희 다원디자인은 전기 설비팀의 전문 엔지니어를 갖추고 있어 조도계산이라든지 조명에 관련한 일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일 경우 외부 경관이라든지, 저희가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는 조명 디자이너와의 조율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요.

-조명 디자이너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명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희소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조명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명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인터뷰 : 여인혁 기자 · 사진 : 강기정 기자